

사순 제 2 주일 가해

화 담 송

시편 33(32), 4-5. 18-19. 20과 22

(후렴) 주 님,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 대로 자애를 베푸 소서.

1.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,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.
2.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 게,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.
3.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.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

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.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.
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전지시고,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.
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,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.

복 음 환 호 송

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, 찬미받으소서.

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네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-어라.